



# 정교회 주보



성 아드리아노스와 나탈리아 순교자

## 마태오 제 9주일

성 아가토니코스, 성 안투사 순교자

제 8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주일 입당송 / 14, A 42

•성모 안식 축일 찬양송 / 181, B 188

•성당 찬양송

•성모 안식 축일 시기송 / 181, B 191

•사도경 : I고린토 3:9~17 / 봉독서 195

•복음경 : 마태오 14:22~34 / 113, B 44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교회의 기혼 성인들

### 성 아드리아노스와 나탈리아 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8월 26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아드리아노스와 나탈리아는 니코미디아(현재 터키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둘은 부부였습니다. 아드리아노스는 어느 날 2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처형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28살이었던 아드리아노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기 위해 우상숭배자들에게 이름을 알려 주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순교하는 것은 영예로운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바로

아드리아노스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나탈리아는 처음에는 슬퍼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남편에게 굳건하게 참고 견디라고 말하였습니다. 끔찍한 박해를 견디면서 아드리아노스는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들이 그의 시신을 불태우려고 하자, 놀랍게도 큰 폭우가 쏟아져 불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드리아노스의 시신은 아내 나탈리아에 의해 묻혔고, 그녀도 얼마 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였으며, 나중에는 남편의 옆에 묻혔습니다.(2~3세기)

##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이전 주보(7월 25일)에서 한, 사도 바울로께서 권고하고 있는 “늘 기도하십시오.”(1테살로니카5:17~18)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앉아있든, 일하고 있든, 쉬고 있든, 먹고 있든, 다른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는데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토스 산의 성 니코데모스(18세기)는 우리가 삶에서 감사한 일에만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에도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니코데모스 성인은 우리들 각자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 때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짧은 예수기도를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들이 소금에 절인 것처럼 맛 들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생각들은 “끊이지 않는 기도”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성서나 영적 서적들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울 때, 우리 주변에서 하느님의 창조물을 볼 때

에도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잘 때 우리의 호흡과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하듯이, 기도의 존재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기도도 계속됩니다. 성 대 안토니오스께서는 성서의 말씀, “나는 자리에 들었어도 정신은 말짱한데”(아가5: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잠자려고 누웠을 때,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 몸의 영혼은 깨어있고, 깜빡이는 눈꺼풀은 하느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막의 위대한 수도자가 위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이 낮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과 행동으로 주의하면서 생활하면, 잠잘 때에도 하느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악몽도 없고, 더럽고 무서운 꿈도 없이 평온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기도가 들어올 때 즉,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1고린토10:31)라는 말씀대로 할 때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 에비아의 야고보스 성인(1920-1991) 6

야고보스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성당에서 성찬예배가 드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은 제가 성찬예배를 집전하고 있을 때, 저는 제가 본 것 때문에 도저히 대입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밀어서 예비제단 쪽으로 이끈다고 느꼈고, 그래서 몸을 돌리자 대천사가 제 어깨에 날개를 드리우고는 대입당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찬예배 동안에 거룩한 제단에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때때로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의자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같이 집전하던 신부님은 제게 건강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찬예배 때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또 어떤 부모가 말썽꾸러기인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보았을 때, 성인은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엄격함이 아니라 사랑으로써 아이에게 충고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은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하느님이 주신 첫째 계명입니다.(창세기3:3 참조) 예수님조차도 금식하셨습니다.(마태오4:2) 제가 비록 70살이지만 금식을 해도 몸에는 어떤 해로움



도 없답니다. 금식은 질병과 악으로 기우는 욕망과 악령들을 모두 물리쳐줍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성인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고 예배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은 신부님이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고 위중한 수술을 받게 하시나요?” 그러자 성인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제가 겸손해지도록 이 모든 질병과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아타나시아



## 대교구

### ■ 전주 성모안식 축일

지난 8월 14일(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요한 보제는 성모안식 축일을 맞아 전주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날 전주 성당의 신자들은 오전부터 성당 청소와 꽃 장식, 성체빵과 아르토클라시아 예식 때 사용할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여름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와 치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주교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친교로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가족들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경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가 거행되었고, 대주교님께서 “우리 삶의 고통과 성모 마리아의 도움”이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에 처했을 때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께 의지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날, 주일인 8월 15일에는 조과와 성찬예배를 거행하였습니다. 성찬예배의 설교에서 대주교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중보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인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이후에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의 중보가 있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과 성인들의 중보만으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고 우리 개개인의 투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일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모든 신자들과 함께 새로 건축 중인 성당을 방문한 것은 모두에게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성당에서 처음으로 신자들이 부른 성모안식 축일 찬양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주교님께서 “우리는 지금 성모님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당 재건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단계를 거쳤습

니다. 지금 우리는 성당의 돔 아래 서 있습니다. 성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옛 성당에서 지금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성당으로 옮겨야 했을 때 우리의 눈을 가득 채웠던 슬픔의 눈물을 항상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경이로운 눈으로 새 성당을 보고 있고, 슬픔의 눈물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년에는 새로운 성당에서 성모안식 축일을 경축하길 희망하면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새 성당 건축을 마무리하고 준비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이 성당은 여러분의 성당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성사 생활로 거룩하게 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기도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유례없는 큰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생당하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기도합시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8월 15일 주일에 로만 신부님의 집전으로 세례성사 거행되어 Kan Kristina와 자녀 Kim Karolina가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8월 15일 주일을 맞이하여 성모 안식축일 성찬예배가 유아세례와 함께 집전되었습니다. 이날 성 야고보 주님의 형제 이름으로 세례와 견진을 받은 유아는 김성호(막심)과 김자라(Zlata)의 첫 아들입니다. 유아세례를 집전한 다니엘 대신부와 성 바울로 성도분들은 야고보 및 그의 부모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총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길 축원합니다.